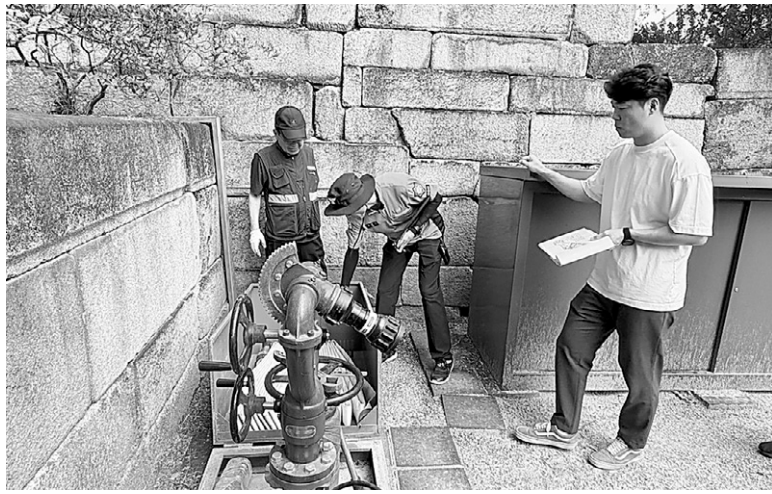


국가 유산 보호 역량강화 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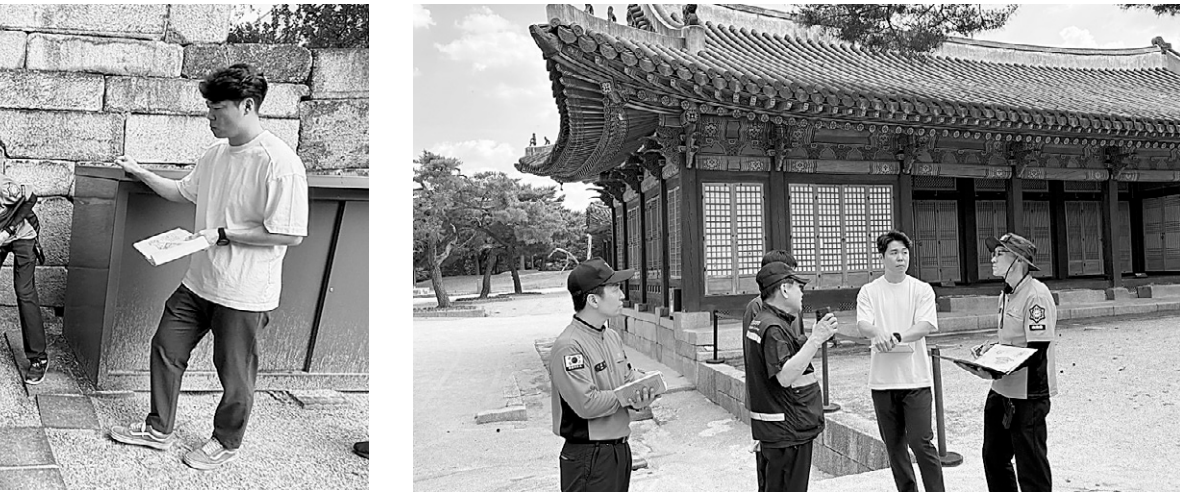
종로소방서, 창덕궁·창경궁 등 현지 적응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국가 유산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 유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원의 국가 유산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현장대응단과 종로119안전센터, 연건119안전센터 등 소방공무원 30여 명과 차량 6대가 동원됐다.

훈련은 창덕궁과 창경궁 내 주요 목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소방출동과 차량 진입 동선, 소방시설 위치 및 작동 상태, 주요 문화유산 현황 등을 확인하며 실천



국가 유산 화재 대응 역량 집중 점검 차원 목조문화유산 화재 대응 절차 바탕 인명 구조 등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와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도록 대상물별 특성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소방활동 자료를 현행화했다.

특히 창덕궁과 창경궁은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국가 유산으로 목조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목조문화유산 화재 대응절차(SOP 228)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호와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숙달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문화유산 반출 절차와 소방용수 확보 방안, 소방차량 부서 위치 등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종로소방서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국가 유산 현지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종로소방서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종묘 등 관내 주요 국가 유산 4개소를 대상으로 팀별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해 국

가 유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은 “창덕궁과 창경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으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고 역사적 가치 또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평소 철저한 훈련과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서장은 또한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적응훈련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가 유산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혜화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평창동, 창신3동 이어 세 번째

종로구가 혜화동을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흔들림 없이 일상을 이어가는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했다.

평창동과 창신3동에 이어 세 번째인 ‘치매안심마을’은 고령화로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요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동(洞) 단위로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종로구 안에서도 돌봄 기반이 두드러진 혜화동의 특성이 토대가 됐다. 치매 관리율은 37%, 대상자 등록률은 53.22%로 지역 평균(31.68%·46.95%)을 웃돈다.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우호적 태도도 주목할 만하다. 종로구가 이달 진행한 인식도 설문에서 혜화동 주민들의 치매 태도 점수는 평균 53.3점, 지식수준은 평균 73점으로 집계됐다. 예방과 관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준다.

종로구는 지난 10일 혜화동주민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열고 제1차 민관 협력 운영위원회를 가졌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해마버스 및 해마키우기 등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4월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작업치료와 전문기기를 결합한 인지증대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12회기 분량의 맞춤형 인지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혜화동에 자리한 4권역 건강이랑서비스센터(구 명문건강증진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 운영한다. 10월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 대상 선별검사를 열 예정이다.

물리적 환경도 손본다. 개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가맹점’을 발굴하고, 이들을 잇는 동선에 이정표 등 안전시설을 갖춘 ‘치매안심길’을 조성한다. 참여 업소에는 분기별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

사회적 울타리 조성에도 힘쓴다. 통장 회의에 사업 설명과 치매이해교육을 결합하고, 학생·교직원 교육도 열어 온 마을이 환자를 돌보는 구조를 만든다.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마을’의 본질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혜화동의 끈끈한 주민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전했다.

‘119구급활동 어워즈’ 종로소방서 우수 구급대 선정

서울시 119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 인정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가 지난 1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한 ‘2026년 119구급활동 어워즈(Awards)’에서 절차준수 및 기록 분야 우수 구급대로 선정됐다.

「119구급활동 어워즈」는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수 구급대를 포상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 대응 역량 및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구급활동 실적에 대상으로 서울시 내 161개 구급대를 평가했으며, ▲환자평가 ▲응급처치 ▲절차준수 및 기록 등 3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종로소방서 송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이대현, 소방교 장주영, 소방사 오다경 이하 3명의 대



원들은 특히 절차준수 및 기록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요 평가항목은 ▲환자 접촉 후 1차 활력징후 측정 기록률 ▲Pre-KTAS 기록률 ▲거절·거부 확인서 기록률 등으로, 구급활동 전 과정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한 점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한 현장 구급활동 시 환자 상태를 신속·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록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종로구 청진공원 시민 일상 휴식 선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지난 12일까지 청진동 청진공원에서 ‘2026 가든 피크닉 워크 in 종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발맞춰 종로 생활권과 방문객 모두에게 바쁜 일상 속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람회장을 직접 찾은 여유가 없는 시민 누구나 도심 한복판에서 정원의 가치와 싱그러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진공원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라이브 음악 공연과 정원의 매력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한옥의 고즈넉함과 현대식 정원이 어우러진 공원 중심부는 열린 피크닉존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대형 파라솔과 테이블 및 편안한 의자를 곳곳에 배치해 누구나 도심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 가벼운 도시락 하나만 챙기면 별도의 준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종로에서 주얼리랑 놀자”

(주)코리아주얼리센터 매주 토요일 개최

종로구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주)코리아주얼리센터에서 「종로에서, 주얼리랑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이 직접 보석을 만들고 디자인하며 종로 주얼리 특유의 매력을 체험하도록 마련됐는데, 종로구는 국내 주얼리 사업체의 성장수가 모여 있는 산업 거점 특구에서 일반 시민 누구나 제조 현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관광객에게는 종로만의 차별화된 체험 자원을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지·팔찌·목걸이·스마트록 등 손으로 완성하는 제작 코스와 스케치·컬러 조합·배치로 개성을 풀어내는 디자인 코스 등 총 20가지를 준비했다. 체험 장소는 종로 3가역 (주)코리아주얼리센터(둔화문로 41) 4층 세미나실이다. 매주



토요일 13시, 14시 40분, 16시 하루 세 차례 60분간 진행된다.

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1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회차당 10명 이내로 모집하며, 최대 12명까지 선착순 참여 가능하다.

수강료는 재료비를 포함해 9,900원부터 25,000원까지 코스별로 다양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한 뒤 네이버 ‘주얼리 스토어’에서 재료비를 결제하면 된다.

딸아이의 웃음이 유난히 빛나던 그날, 그 시작엔 성균관컨벤션이 있었습니

500년 넘게 한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성균관 명륜당의 은행나무처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해 온 웨딩홀이 있습니다.

전통과 품격, 그리고 잊지 못할 감동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에서 느껴보세요.

- 프라이빗한 단독홀 & 신부대기실
- 혜화역 셔틀, 넉넉한 주차
- 프리미엄 150가지 메뉴 뷔페

예식/행사 문의 02-744-0677 <http://www.skconvention.co.kr/>



복지사각 취약계층 생활 안정 뒷받침

종로구 '사랑나눔 1사1동' 복지사업



▲삼청동에서 매일유업 측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모습.



▲창신2동에서 우리카드 측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모습.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추진하는 「사랑나눔 1사1동」 사업이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종로구 '사랑나눔 1사1동'은 기업과 동주민센터가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각 동의 복지 수요에 맞춰 후원금부터 생필품과 식료품, 재능기부 등을 전하는 민간 협력 복지사업이다.

이들테면 동주민센터가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가까이서 살펴,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으로 화답하는 구조다.

현재 현대건설과 매일유업,

현대건설, 매일유업, 한국마사회 등 단체 참여 생필품, 어르신 식사, 청소년 장학금 등 지원

한국마사회 종로지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동별 특성에 맞춘 후원을 이어가는데,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생필품과 어르신 식사, 취약계층 이불·침구류, 주거 취약계층 생활용품, 청소년 장학금까지 도우미의 형태도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후원금과 물품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명

절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수요까지 챙기며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손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동시에 기업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실천하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기업의 선의와 동네의 복지

수요가 만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하길 원하는 기업·기관·단체가 손쉽게 동참하도록 안내와 연계도 꾸준히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이나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관련,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사랑나눔 1사1동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동주민센터와 나눔을 실천하려는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지역 자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 도달도록 민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암동 은행나무 살린다”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 토양 오염 정밀검사 등 회복 조치

종로구가 부암동 사유지 도로변 은행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토양 오염 정밀검사와 함께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이라는 두 카드를 꺼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으면서 나무를 지역 자산으로 삼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려는 구상이다.

종로구는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은행나무 주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제조제 성분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검사 결과는 향후 토양 개량과 수목 회복 처방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토양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객관적 데이터로 풀어내는 데도 쓰일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은행나무를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수령 400년 이상을 요구하는 ‘보호수’ 등재 기준에는 닿지 않지만 오랜 세월 마을 풍경의 일부로 자리해 온 만큼, 토지 소유주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적 보호방안으로 끌어들이 계획이다.

지정이 확정되면 향후 관리·점검·복원 전 과정에 종로구의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



▲종로구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부암동 사유지 도로변 은행나무.

해진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부암동 한 미술관 담장 옆 사유지 도로에서 자라던 은행나무에 제초제가 투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미술관 측이 담장 훼손을 이유로 약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해 왔다.

이에 종로구는 5월 22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당일 현장을 찾아 훼손 상태를 살폈고, 26일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약제 성분으

로 수관부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고유 수형 훼손이 우려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종로구는 이를 바탕으로 미술관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책임 있는 원상복구’를 공식 요청한 상태인데,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수목을 허투루 잃을 수는 없다”며, “토양검사와 ‘아름다운 나무’ 지정

을 비롯해 종로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가동해 부암동 은행나무를 지역의 자산으로 되살려 내겠다”고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7월까지 상반기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종로구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종로구가 고물가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자

영업자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공직자가 먼저 지갑을 열어 모범을 보이는 데서 출발한다. 종로구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부서별 점심 및 간담회와 소모임 등을 착한가격업소에서 진행하도록 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소비문화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종로구가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용업·미용업·숙박업소 등 총 74곳(2026. 6. 10. 기준)이다. 업소별 위치, 대표 메뉴, 가격 정보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는 캠페인 전개뿐만 아니라 신규 업소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주민이나 공직자가 가격과 품질 면에서 추천할 만한 업소를 발견하면 상시 제보를 접수해 심사한 뒤 추가 지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검증된 가성비 업소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7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상반기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업소들의 자생력을 높인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50만 원이고, 지정 시기를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2025년 이전 지정 업소는 50만 원, 2026년 1~3월 신규 지정 업소는 25만 원이다. 하반기 인센티브 지원은 10~11월 예정돼 있다.

“러브버그 불편 줄인다”

종로구, 친환경 포집기 운영

종로구가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대량 발생하며 생활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유인물질 포집기 운영과 서식환경 관리에 나선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매개하지 않는 익충이지만, 대량 발생 시 주민 불편과 생활민원을 유발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주민 민원은 총 718건으로, 대부분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에 집중됐다. 기존에는 북악산과 인왕산 등 산지·녹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도시생활권 주변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종로구는 공원, 녹지지역, 산책로 등 러브버그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유인물질 포집기를 6월 초 설치해 7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총 150세트의 포집기를 설치하고 유인제를 넣어 공원 내 기둥과 나무



등에 매달아 운영한다.

포집기에는 페닐아세트알데히드(Phenylacetaldehyde)를 활용한 친환경 유인제를 사용한다. 이 물질은 러브버그 성충을 유인·포집하는 방식으로 화학약품 없이도 개체수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원순환 활성화 무인 페트병 회수기 확충

기존 4곳에서 7곳에서 운영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 관내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대폭 늘렸다.

투명페트병은 섬유와 의류 원료로 되살아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순환 자원이지만, 일반 재활용품과 뒤섞여 배출되면 이물질에 오염돼 재활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종로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회수기 보급에 앞장서며 구민 누구나 일대에서 손쉽게 분리배출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사용 방식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어낸 투명페트병을 기계에 넣으면 AI 센서가 페트병 여부를 스스로 판별한 뒤 압착해 수거한다. 개당 10포인트(원)가 자동으로 쌓이며 누적 2,000점을 넘기면 전용 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도 지키고 가계



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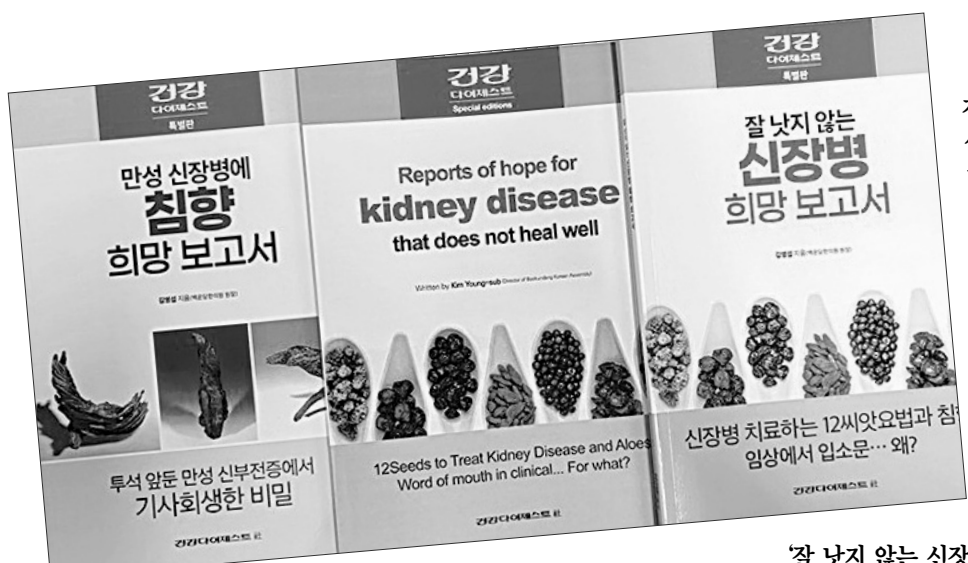
종로구는 이번 확대 설치를 통해 운영 거점을 4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해회동) ▲교남동주민센터 ▲부암동주민센터 ▲송인제2동주민센터에 더해, 주민 접근성과 유동 인구를 고려하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화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가회동주민센터 3곳에 신규 설치를 완료했다.

포켓북 사이즈

‘만성 신장병 침향 보고서’ 발간

40여 년 침향 연구 백운당 한의원 김영섭 원장

만성 신장병 침향 보고서, 잘 낫지 않는 신장병 희망 보고서 등 신장병에 대한 설명과 예방, 치료법 소개



백운당한의원의 김영섭 원장이 최근 신장병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성 신장병에 침향 보고서 ▲잘 낫지 않는 신장병 희망보고서 ▲Reports of hope for kidney disease that does not heal well(신장병 희망보고서 영문판) 등 3권의 포켓북 사이즈의 책을 발간, 화제가 되고 있다.

‘만성 신장병에 침향 보고서’는 침향에 대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담고 있으며 40여 년 침향을 연구하고 30여 년 임상에 활용하면서 울고 웃었던 이유를 시작으로 ▲잘 낫지 않는 만성 신장병에 침향을 쓰는 이유 ▲기사희생의 명약으로 침향을 꼽는 이유 ▲오장육부를 살리는 침향의 비밀 ▲최고의 명약 침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들 ▲신장병의 명약 침향도 진품이냐 ▲최고급 침향의 4가지 조건 ▲진품 침향 AAR, 유사 침향 AML 어떻게 다르기에 ▲우후죽순 침향 제품 간헐하게 고르는 팁 ▲백약의 왕 침향 궁금중 일문 일답 ▲침향의 대중화 ‘득과 실’ 등에 대해 수록돼 있다.

하고 있으며, ‘Reports of hope for kidney disease that does not heal well’은 ‘잘 낫지 않는 신장병 희망 보고서’의 영문판으로, 한학으로 신장병 치료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발간됐다.



... 김영섭 원장 약력 ...

- 건국대 경제학과와 경희대 한의과대학 졸업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대의원총회 부의장
 - 중국 요령성 중의연구원 객원교수
 - 국민대학교 공연예술원 겸임교수(예술보건학)
 - 필리핀 국립이히스트대학교 중신석좌교수
 - 국가원로회의 부위원장
 - 한미친선 연합회 운영위원장 등.
- (※국민훈장 목련장·대한민국 문화훈장 등 수상)



건강칼럼



김영섭
백운당 한의원장

최음 강장의 비약식 음양곽전골

▶▶ 재료

생약 음양곽 10g, 소 간 400g, 배추 조금, 다시마(길이 10cm 정도의 것) 3장, 두부 1모, 시금치 한단, 파 1뿌리, 생강 1개, 청주 1큰술, 양념(후추, 고추, 겨자, 참깨, 식초)

▶▶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 소간 소의 간은 조혈의 성분인 철, 동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빈혈 증 환자에게 좋고 아울러 눈병

에도 좋은 음식이다. 그러나 소간은 생식을 하게 되므로 매우 싱싱하지 않으면 안되며, 어리이들의 경우에는 기생충감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먹는 방법도 있다.

• 음양곽

음양곽은 삼지구엽초의 잎을 말린 것이다.

삼지구엽초는 한 대에 가지가 셋으로 갈라져 났고, 한 가지에 세 개의 잎사귀의 줄기가 갈라져 나 있어 이 이름이 생긴 것인데 다년초로서 야생한다.

음양곽은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정량을 충만하게 하여 성욕을 돋우고 또한 정액분비를 향진시키며 이밖에 유정·조루·성신경 쇠약에 효과가 있다.

때문에 정력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주목할만하다.

▶▶ 이렇게 만듭니다

1. 음양곽을 세 겹의 물에 넣어서 약한 불로 한 시간 이상 끓이다가 물이 한 컵 정도로 줄면 배에 받쳐 약물을 받아두고

뽕니뽕니해도

“밥상이 보약이다”

찌꺼기는 버린다.

2. 간을 2cm 정도로 각이 지게 썰고, 이것을 그릇에 담아 약 30분가량 청주에 재워 둔다. 이것을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썰어 접시에 담아 놓고 배추·시금치도 역시 데쳐서 썰어 둔다.

3. 다시마는 썰어서 냄비 밑에 깔고 간장 국물을 세 컵 정도 넣고, 미리 준비했던 음양곽 약물을 간과 야채와 함께 넣는다.

4. 따로 작은 접시에는 양념장(간장에 식초·겨자·고춧가루·참깨를 쳐서)을 만들어 둔다.

5. 국이 다 끓으면 잘게 썬 파를 그 위에 뿌리고 저은 다음 냄비를 내리고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 알아두면 좋습니다

육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32개의 이 중에 육식을 씹을 수 있는 차이는 4개 밖에 없으므로 총 식량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육류만 섭취하는 것이 이

상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왕 적은 양의 육류를 섭취할 때는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한 소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자. 먼저 소의 내장이나 가족의 요리는 강장제로 효력이 있다. 특히 소꼬리곰탕은 보신제로 옛날부터 유명하며, 소의 생피는 강정제로 첫 손 꼽힌다.

해장국의 선지 정도로 만족하면 몰라도 생피를 직접 소 목구멍에서 받아마시기는 곤란한 터이니, 그렇다면 소의 간을 먹는 것이 좋다.

백운당 한의원 김영섭 원장 약력

- 건국대 경제학과 졸업
- 경희대 한의과 졸업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대의원총회부의장
- 서울시 한의사회 대의원 총회 의장
- 중국 요령성 중의연구원 객원교수
- 국민대 공연예술원 겸임교수
-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 회장
- 동대문문화원 원장
- 한국문화원연합회 수석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저널문에

- ‘엄마 산소’ -



청년 조미남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 (사)한국문인협회 종로지부 이사
- 계간 문예 작가회 이사
- 한국 가곡작가회 회원
- (사)국제 PEN 회원

동백꽃이 뚝뚝 떨어져
몇 송이 달랑 남아 있는
엄마의 산소 가장자리

그토록 열정으로 살아낸
엄마의 삶에 되새김질 한다

따뜻한 5월 꽃으로
환생하셨나
노란 꽃들이 만발하였다

동백꽃은 시들어 땅에 닿았고
이제는 볼 수도 없지만
마음이 따뜻하다

화순 개미산
가족공원이 조성된 주위에
갖가지 꽃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분수대 하얀 물줄기
높이 올라갔다
여러 형태로 춤을 춘다

몰려드는 인파 속에
우리 엄마 환하게 웃는 모습
내게로 다가온다

‘2026 운동주 문학제’ 전국 창작 공모전 참여자 모집

시화 · 창작음악 · 미디어 등 3개 분야

종로구가 「2026 운동주문학제」의 개막을 알리는 공모형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운동주 시민의 정신과 문학세계를 시민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더해 운동주의 작품 속에 담긴 우리말의 결과 문학적 가치를 다양한 창작 방식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2026년 공모는 <제13회 전국 초중생 운동주시화공모전>, <제12회 전국 운동주창작음악제

>, <제2회 전국 운동주미디어공모전>으로 구성했다.

먼저 제13회 전국 초중생 운동주시화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운동주의 시를 주제로 한 직접 쓰고 그린 시화 원본을 7월 14일부터 8월 21일 17시까지 운동주문화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12회 전국 운동주창작음악제는 운동주의 시를 가사로 삼은 자유 창작곡을 모집한다. 올해는 시 전문을 가사화하는 ‘원문 유형’과 일부 구절을 발췌하는 ‘부

본 유형’으로 나눠 운영하며 개인과 단체 모두 도전할 수 있다. 6월 16일부터 8월 7일 24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제2회 전국 운동주미디어공모전은 브이로그, 스토리텔링, 다큐, 숏폼, 릴스, 뮤직비디오, 무용, 연극 등 표현 형식에 제한이 없다. 30초 이상 3분 이내 영상을 제작해 6월 16일부터 8월 7일 2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문학제 공식 행사와 연계해 전시, 상영, 공연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시화공모전 수상작은 전시회와 작품집으로 엮어 선보인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 목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
 - 상근근로자
 -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 단시간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
 - ☞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 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 절차
 -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종로는 대한민국 1번지”

주간신문 종로저널, (주)종로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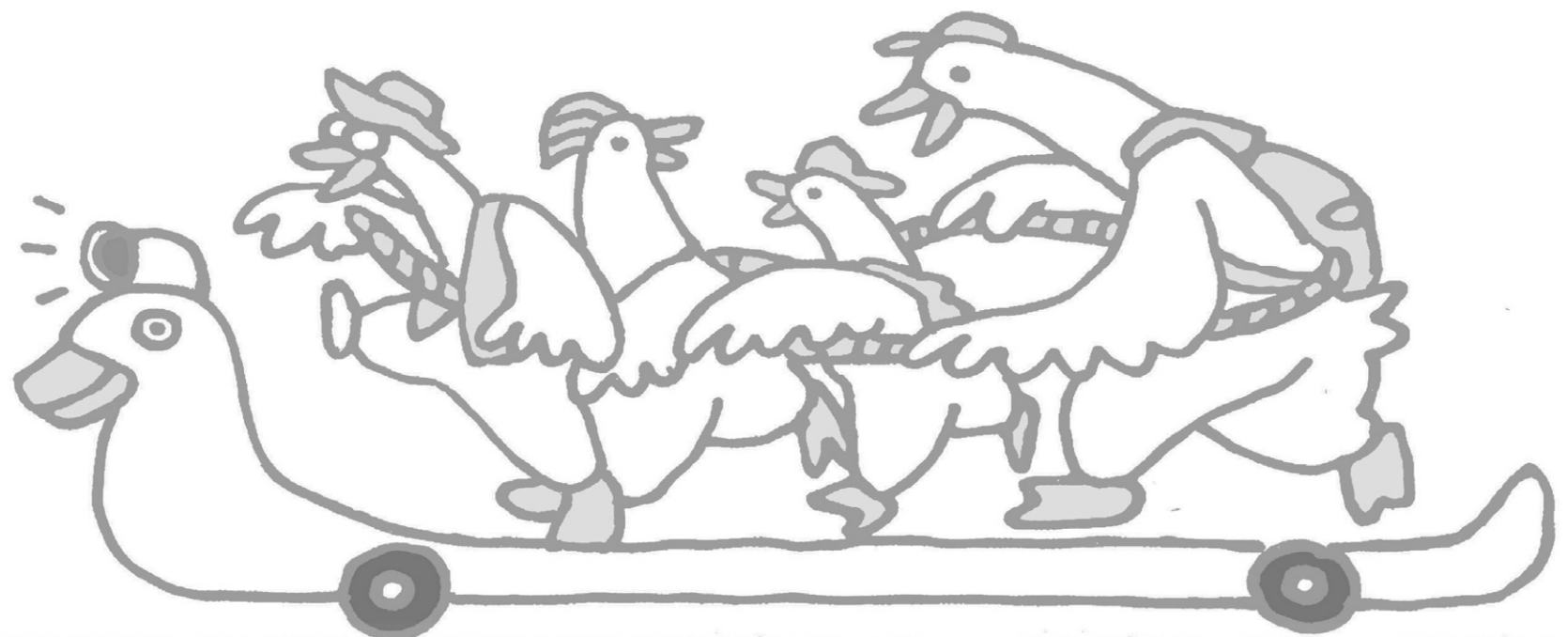
- ◆ 등록번호: 서울D02432
- ◆ 대표이사: 이병기
- ◆ 인쇄인: 김범식
- ◆ 발행소: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5길 7 103동 311호
- ◆ 발행일자: 2026년 6월 22일(월) <제1007호>
- ◆ 등록일자: 1992년 9월 2일
- ◆ 발행·편집인: 이병기
- ◆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02)723-5597, 736-5598, 월 6,000원
- ◆ 메일주소: leesu5597@hanmail.net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로 버스교통비 출퇴근과 일상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버스타고종로이리



· 신청: 동 주민센터 및 교통비 홈페이지(tbokji.tmoney.co.kr) · 대상: 종로구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여름철 현장 활동 안전관리 점검

종로소방서, 23일까지 순회 교육 실시

현장 대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차원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6년 여름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교육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종로소방서 관내 현장대응단을 비롯한 5개 119안전센터(신교·종로·연건·신영·송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대응단 지휘팀과 재난관리과가 직접 순회 방문해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폭염 대응 물품 확보 및 출동차량 비치 상태 확인, 온열질환 예방대책 운영 실태,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및 수난구조 현장활동 지침 교육 여부, 구명조끼·위주저기 등 안전장비 보유 및 관리

상태 등이다. 별집제거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실태와 응급처치 교육 실시 여부, 실제 사고사례를 활용한 안전교육 추진 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종로소방서는 장시간 현장 활동 시 교대조 운영과 재난현장 화복시설 운영 등 대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풍수해·수난구조 활동 시 현장 안전담당 지정과 복수 구조요원 편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리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 대원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은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별집제거 출동 증가 등으로 현장 대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속, 정확한 수관 전개 능력이 핵심”

종로소방서, 고층 노후 아파트 화재진압 훈련 송인·신교·연건·신영·세종로·종로 등 6개 안전센터참여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지난 10일 종로구 무악동 소재 현대아파트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관전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팀 대응 소방 전술 평가를 앞두고 고층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현장 대원들의 실천 대응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화재진압 전

술 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는 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송인·신교·연건·신영·세종로·종로 등 6개 안전센터의 1팀이 순차적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무악현대아파트 10층을 가상 화점으로 설정하고, 각 팀이 직접 화재진압용 수관을 전개해 화점까지 신속하

게 방수선을 구축하는 훈련을 반복,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고층 건축물 화재 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화재진압 활동인 수관 연장 및 전개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숙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에 따른 출동 및 현장지휘체계 운영 ▲연결송수관설

비 활용 및 수관 전개 ▲10층 이상 화점까지의 신속한 방수선 구축 ▲팀 단위 화재진압 전술 수행 ▲현장 안전관리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다.

고층 아파트 화재는 화점까지 장거리 수관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능력이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훈련에 참가한 18개 팀은 반복적인 수관 전개와 방수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은 훈련 강평을 통해 “고층 건축물 화재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관 전개 능력이 곧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역량”이라며, “6개 안전센터 18개 팀이 실천과 같은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실시한 만큼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서장은 특히, “시민들께서는 평소 거주 중인 아파트의 피난계단과 대피로 위치를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한 채 계단을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정 내 전기·가스시설 안전 점검 생활화 등 화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병 기(정치학박사)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약 20일이 흘렀다. 애매모호한 선거 결과로 인해 중앙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해석이 갈리면서 또다른 갈등과 대립도 연동되는 분위기다. 지역적으로는 승패가 확실할 때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묘한 승패가 연출됐기 때문인데, 이는 모두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바라보기일 뿐이다. 다양한 관점의 세상이 낳는 풍경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확실히 예상 밖이다. 당초 저조한 선거율이 대폭 상승했으며, 그로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 선거를 조장하면서 국회의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사태를 낳았다. 중앙정치권은 재선거 소청을 결의하기도 하고, 정당별로는 당권 싸움의 빌미가 제공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문제는 저질 공천으로 보인다. 공천 과정에서 온갖 추문과 진흙탕 싸움도 목불인견이었지만 공천 이후의 불협화음도 유권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래서 정치무관심이 정치혐오로 변하면서 투표 참여 저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중지를 요구하면서 소란이 발생했다. 심지어 구청 주무 부서에서 인가를 강행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도 펼치겠다고 압박하면서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나타나는 형국이 됐다.

이번 현직 구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까지 하면서 현직 구청장과 신임 당선자 간에 대립과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이번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아주 민감한 사안인 여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지난 2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추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면서 국가유산청의 반발을 샀고, 이것이 정치권의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번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던 사안이다. 서울 도심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그 앞의 중요 문화재 보존이라는 목적과 원칙이 상호 충돌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정치 공학 또는 선거 공학이 결부되어 개발 대 보존이라는 백가쟁명이 소란스러웠던 부분이다.

그 후 서울시가 지난 5일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했는데, 이는 서울시 차원의 재개발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며, 앞으로 사업시행허가 단체인 종로구의 인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종로구는 오는 24일까지 인가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자 측이 인가 중지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종로구청에서 인가를 하면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펼치겠다고 압박을 하면서 작용, 반작용이 싹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20년 지연된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국가문화유산보존이라는 이분법적 논란은 차치하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이라는 주장은 양측 모두 일리가 있으며,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지 않다. 더군다나 앞으로 법원의 행정소송과 세계유산영향평가

뉴턴과 흠의 감성적 반작용

현상을 예고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냉정한 유권자 심판이었다. 대국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는 형색이었지만 부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준엄했다.

이러한 전국 지방선거 저질 공천 현상은 종로구 지방자치 선거에도 나타났다. 공천 과정에서 폭로된 돈 봉투 전달 의혹이 그대로 들렸으며,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나 허위학력 의혹 등도 아랑곳없는 공천이 이뤄졌다.

더군다나 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후보자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후보자들 공천하면서 주민의 불신을 키우는 형국을 보였다. 특히 무슨 오류인지 구의원 무투표 당선을 구의회 의원 정수 50%에 해당하는 5명을 탄생시킨 것은 주민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속절없이 침해한 경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끝났고, 다음 임기 시작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바람과 폭풍이 지난 뒤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듯이 과거보다 나은 지방자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 지방자치 시작도 전에 반목과 대립 양상이어서 우려스럽다. 구청장 당선자 측의 인수위원회가 구청의 모든 인허가 중단을 밝히고, 당선자가 직접 세운4구역 재개발

(HIA)라는 관문도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울고 그름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아니다.

이번 반목과 대립의 씨앗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흠은 ‘이성은 감성의 노예’라고 주장했듯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판별해도 감성적으로 좋고 나쁨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오늘날 양자물리학이 발전하면서 발견한 심장의 진동파가 뇌의 진동파의 60배라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종로구청장 당선자 측이 아무리 옳은 결정을 했다고 해도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다. 아직 정식 임기가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감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더 나아가 공무원 감사 운운한 것은 성급하고도 오만한 압박인 셈이다.

다시 뉴턴의 작용 대 반작용 법칙으로 돌아가서, 흠의 감성 우위론을 적용하면 아직 임기가 남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감성적 반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경우다.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생각했다면 이번 논란은 생기지도 않을 부질없는 오만의 소치다.

“우리 동네 역사자원 활용” 중부교육지원청, 교원 탐방 연수… 사대문 안 탐방, 전자 시간 여행 등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관내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6 중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역사자원 탐방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역사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인 현장 탐방과 북콘서트 등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원들이 관내 역사자원을 폭넓게 경험하고 실천적인 역사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6월 15일과 22일에 이어 24일 등 총 3회, 3개의 과정으로 운영

될 주요 내용은 ▲서울 전자 시간 여행- 사대문 안 탐방 ▲작가와 대화- ‘서울시대’ 유승훈 작가 특강 ▲가려진 역사의 복원-장충단 탐방 등이다.

특히 ‘연수 과정 2’는 민속학자 유승훈 작가를 초빙하여 저서 ‘서울시대’를 기반으로 1960~1990년대 풍속으로 읽는 젊은 서울의 이야기와 학생 대상 관람 교육의 실효를 나누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된다. 교과서 중심의 거시적 역사에서 벗어나

우리 동네의 옛이야기와 풍속사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접할 수 있어, 교사들이 친근한 생활사 중심의 수업자료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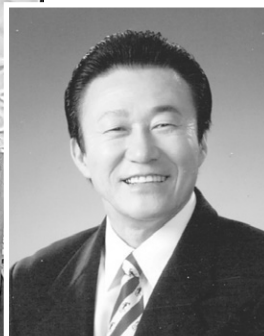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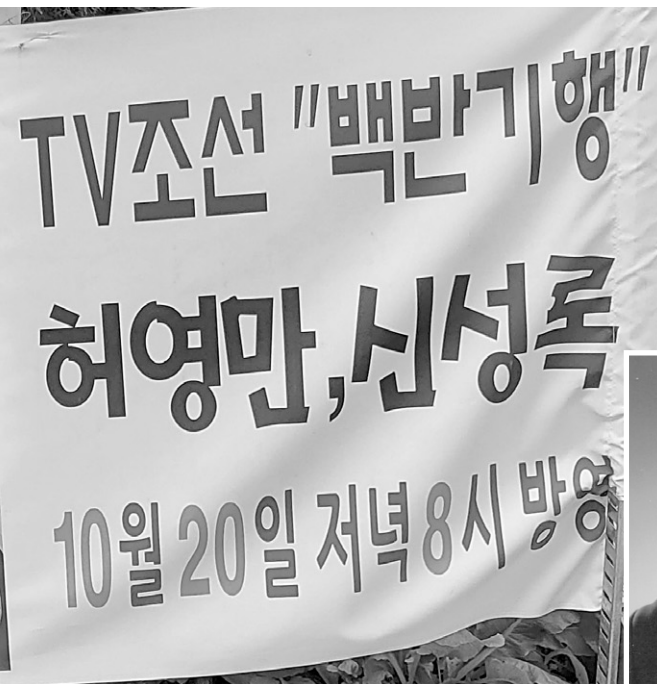
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들이 관내 역사자원을 활용한 수업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수업 지도 역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역사 수업의 현장성과 실천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 스며있는 역

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최도규 교육장은 “이번 지역연계 역사자원 탐방 연수는 교원들이 수업의 영감을 채우고 역사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 중심의 연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 화제 맛집

풍농 해물 칼국수



대표 박종식

이사드립니다

30년 전통의 풍농원에 박종식 대표(종로구 5선 의원)가 지난 4일 “풍농해물칼국수”집을 겸업했습니다.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속에 신선한 해물칼국수가 고객의 입맛을 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풍농원에 주문 · 칼국수 예약

- 대표 : 02-745-0120 (010-8948-0850)
- 김홍순 : 011-9016-4561